

#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 거실공간에 대한 분석적 결과를 토대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Interior Design of Modern Korean Houses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terior design of living area -

윤지영\* / Yun, Ji-Young

박영순\*\* / Park, Young-Soon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trends of the interior design of modern Korean houses since 1960s, and to understand the impacts of Western architecture and design. The photos of 101 houses were selected from the magazines published since 1960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via frequency, percentage, and average.

The result reveals that the interior design of the living rooms in modern Korean houses has undergone lots of changes in finishing materials, window treatments, types of cabinets, and use of lighting fixtures. It is concluded that 1960-1970's is a period of introducing Western design as a superior, while 1980's is a period of exploring various ways toward harmony between Korean style and Western styles, and 1990's is a period of settlement of Koreanized modernism style.

키워드 : 주택 디자인, 스타일 특성, 한국적 디자인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거문화는 한 민족이나 사회집단의 정신세계나 생활양식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의 영역이며, 그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고, 그 안에서 이미 미래를 담고 있는 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다(강영환, 1991). 디자인의 어원은 '상징을 분리시키다 또는 취하다(de signare)'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그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그 해석을 통해 '상징에 의해 구별되는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어원적 의미는 디자인이 상징체계의 해석과 창조에 심각하게 관여함을 말해준다. 즉, 디자인은 인간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문화적 환경 조직에 관여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수, 1994).

특히 주택 디자인은 특정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양식, 미의식, 기술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화 요소이며, 또한 물리적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

물리적, 정신적 문화요소보다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 건축이나 실내디자인은 1960년대 이후 불어닥친 산업화의 바람과 함께 갑작스러운 서구식 형태 및 재료, 기술의 도입으로 전통 건축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서구 양식의 무분별한 인용이나 복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근원에 대한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들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구 양식에서 그대로 차용되어 일반화된 요소들, 우리의 정서에 맞게 변형되어 한국화한 요소들, 기존의 전통 양식과 함께 어울려 사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한국의 건축과 실내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택관련 연구들은 주거 문화라는 포괄적 개념 아래 정부의 주거 정책과 맞물려 주택보급, 주택가격, 단독주택에서 집합주택으로의 변화추이 등에 관해 거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디자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다소 소외되어 왔다. 1990년대 들어 실내디자인 분야의 활성화와 함께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이나 개조 실태, 선호 및 의식에 관해 연구한 것들로, 우리나라 현대 주택디자인의 전체적 흐름과 경향을 파악한 것은 아

\* 정회원, 신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강사, 이학박사

\*\*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니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한국 현대주택의 유형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에서는 그 범위를 주택의 외관형태나 평면구성형태에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주생활의 핵심이 되는 실내공간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구건축양식이 한국 주택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주택 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과 변화된 요소들을 한국전통주택이 지닌 한국적 디자인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서구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의 현대주택에서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문헌고찰

### (1) 현대건축 및 실내디자인 양식

현대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해 본 결과, 국제주의 양식 이후 현대건축은 나라별, 지역별 특성이 그대로 존속되지 않고 특정한 디자인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국제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국내에서 나타나는 건축 및 실내디자인 양식으로는 모더니즘, 레이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sup>1)</sup>,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한 개성적 디자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한국의 주택디자인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양식으로 서구 고전 양식과 한국전통 디자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주택의 양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더니즘, 레이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서구고전, 한국전통의 여섯가지 스타일에 하나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없는 2개 이상의 스타일이 절충된 혼성적 스타일을 첨가하여 일곱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다<sup>2)</sup>.

### (2) 한국 건축 및 실내디자인 경향 및 특성

#### ① 한국 현대건축 및 실내디자인 경향 및 특성

한국 실내디자인의 역사속에 반영되어 온 사회, 문화의 변화는 각 시기마다 실내디자인의 경향을 변화시키면서, 현대화의 추구는 지속

적으로 계속되었다. 따라서 분석의 범위를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에 맞추고 그 흐름을 파악해 보면, 주로 모더니즘의 계열이 주류를 이루다가 80년대 중반이후로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탈근대적 경향이 반영되면서 색다른 형태의 일탈적 요소가 실내공간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홍, 1991).

실내디자인의 표현상의 특성으로 본 모더니즘은 유니버설한 성격의 공간구성으로 엄격함을 통한 단순성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장식의 배제, 표현의 억제로 상징성을 지양하고 디자인의 실용성과 기능성 그리고 현대의 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 탈근대적인 작품에서는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양한 요소와 혼성적이며 복합적인 구성으로 다원적 공간 연출에 절충적 표현과 상징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해체주의적 작품에서는 평면구성상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롭고 개성적인 연출을 위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불일치를 통한 비틀림과 부유하는 듯한 선반 등으로 구성되는 요소들의 중첩, 기능을 담지않은 오브제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성, 한국성을 모색한 작품에서는 현대화된 전통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노력과 전통문양의 창조, 가구 등을 이용하여 표피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으며, 오브제의 전통공예품을 이용한 표현수단을 등장시키고 있다<sup>3)</sup>.

#### ② 한국 전통건축 및 실내디자인 특성

한국 전통건축에 관한 여러 연구(주남철, 1983; 윤장섭, 1990; 신영훈, 1989)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으로 안정감을 지니고 있는 한국적 척도, 순박하고 아름다운 선, 조화로운 공간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노년기의 완만한 지형적 특징과 조화를 이룬 아담한 크기의 건물, 뒷산과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지붕, 그리고 여러 채들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공간의 연속성과 위계성을 이루고 있는 주택의 구조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전통건축에 관련된 문헌들(주남철, 1983; 윤장섭, 1987; 신영훈, 1989, 박영순, 1998)을 토대로 전통주택의 실내에서 나타나는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첫째, 인위적인 기교나 요란함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둘째, 간결한 선과 장식의 절제를 통해 표현되는 여백의 미, 셋째, 자연소재의 중성색을 사용한 검허하고 조화로운 공간, 넷째, 인체에 적합한 밝고 친밀한 인간적 규모라고 종합해 볼 수 있다.

#### (3) 한국 현대주택 디자인의 시기 분류

한국 현대주택의 디자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 관련 학문 및 실내디자인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기 분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서구 건축양식의 경우, 찰스 젠크스(1982)는 모더니즘을 1920년에

3) 한국 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에 대한 연구들과 건축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박홍, 1991; 김문덕, 1995; 김경수, 1989; 김도식, 1993 등)을 토대로 한국 현대건축 및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종합해보면 (1)국제주의 양식의 계승, (2)오브제적 경향을 보이는 모더니즘 변용, (3)상징, 은유적 표현 언어를 통한 탈근대적 표현, (4)해체적 경향, (5)한국성 모색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이 분류는 모더니즘 이후의 양상을 레이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분류한 젠크스(1982)의 스타일 분류에 따른 것이다. 스텐(1980)은 레이트모더니즘을 '전통적 포스트모던(Traditional post modern)'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열적 포스트모던(Schismatic post modern)'으로 분류했으며, 김민수(1994)는 레이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경제-기술적 문제의 해결 방식을 강조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해석을 강조하는 양식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레이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은 슈투트가르트 갤러리 건축물의 예를 들어 엄밀한 의미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레이트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스타일을 구분한 것은 노만 포스터와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디자인에서처럼 작가의 선택에 따라 두 양식이 명백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뿐 아니라 다른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시대적 양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각 스타일의 시대적 배경, 이념, 디자인 특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그 양이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하였으며, 다만 분석 도구로 사용된 스타일 분류를 위한 디자인 특성표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소하여 p.3-4에서 소개하였다.

서 1960년까지, 레이트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두 1960년 이후에 현재까지 병행하는 디자인 양식으로 규정하였다. 김민수(1994)는 서구 양식을 특정 시기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를 앤디 워홀과 같은 팝 아티스트의 활동과 기호학과 디자인과의 접목에 따른 포스트모던 문화의 태동기로 보았으며, 1980년대에 와서 새로운 시대화 개념으로 전문영역과 학술적 그리고 사회 일반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술사적 분류에서는 1960년대는 추상미술주의의 쇠퇴 및 오페아트, 팝아트, 네오다다의 영향에 따른 아방가르드 협회의 창립, 1970년대는 자유롭고 열린 실험의 시기로 시작하여 후반에는 서구 미니멀리즘의 영향에 따른 백색 모노크로니즘의 확산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았다. 1980년대는 대립과 다원주의의 시기로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에 따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았으며, 1990년대 와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이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파악하였다.

건축사나 주거 정책 분야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시기 분류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10년 단위로 그 변화를 파악하기도 하였다(한국의 현대건축, 1994). 건축학계에서는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1962년에서 71년까지 1, 2차 경제개발계획 시기를 공동주택의 실험적 모색기로, 1972년에서 81년까지를 주택의 대량공급시기로, 1982년에서 91년까지를 다양화의 모색기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한국현대건축의 시기를 1956년에서 1990년으로 정하고, 1956년에서 1980년까지를 현대건축의 중흥기로, 1980년이후를 다원의 시대로 분류하였다.

주거학 분야에서 주택의 평면 형태 및 주생활 행위를 분류한 연구들(윤복자 외, 1992; 임창복, 1989; 조성희, 1994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방후에서 1960대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 이후의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는 실내디자인의 변화를 체계적인 시기별로 분류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상업공간 실내디자인의 변화 추이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분류하여 10년 단위로 파악한 박홍의 연구(1991)가 있다.

이상과 같이 건축, 주거, 미술 등 인접 학문이나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시기분류를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10년 단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 디자인의 변화를 인접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 1.3.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및 선정

국내에서 1960년대에서 1997년까지 발간된 주택, 건축, 인테리어 전문지에 소개된 주택의 거실 사진을 분석하였다.<sup>4)</sup> 1960대와 70년대

의 주택분석을 위해서는 “공간”, “주택”, “건축가”, “건축사” 등에 게재된 주택 자료 가운데 사진 분석이 가능한 모든 주택을 선정하였다. 1980년 이후에는 기존의 전문지 외에도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플러스”, “현대주택”, “인테리어”, “현대건축”, “이상건축” 등 칼라 인쇄로 된 많은 전문지들이 발행되었으며, 발행된 전문지 대부분에서 다수의 주택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정기준으로는 (1)건축, 인테리어 또는 주택관련 전문지에서 2회 이상 다루어진 주택과 (2)주택 단행본에서 디자인이 우수한 주택으로 전문가에 의해 선정된 주택가운데 전문지에 1회 이상 실린 단독주택을 모두 선정하였다. (1)과 (2)에서 선정된 주택가운데, 주말주택, 주상복합주택, 그리고 건평 30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제외하였으며, 특정 건축가의 디자인이 전체적인 분석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 건축가의 작품이 3개 이상 포함되지 않게 그 수를 제한하였다. 최종적으로 1960년대 16개, 70년대 20개, 80년대 30개, 90년대 35개로 총 101개 주택이 선정되었다.

#### (2) 분석 도구

##### ① 디자인 분석표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디자인론 저서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디자인 원리와 인테리어 구성요소에 관련된 이론을 종합, 정리하여 주택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디자인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디자인 분석표는 실내건축요소, 가구 및 장식요소, 기거양식 및 소파배치 형태, 스타일 및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표로 구성되었다.<sup>5)</sup> 각 요소별 형태와 재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Inside Today's Home(1986), Jiyoung Y. Jeong(1993), 이윤정(1995)의 논문, 주거학 저서(윤장섭, 1982; 윤복자/지순, 1992), Period Style (Gilliatt, 1990)을 토대로 구체적인 유형과 종류를 기술하였다.

실내건축요소에는 바닥, 벽, 천장, 창, 창문처리, 몰딩의 재료, 형태, 문양 등이 포함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 문은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가구 및 장식 요소는 소파류, 의자류, 테이블류, 장류, 장식품류, 조명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유형을 모두 열거한 후 연구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스타일은 우리나라의 실내디자인에서 혼성적 스타일이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홍, 1991)를 고려하여 실내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주도적 스타일과 장식이나 일부 가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 스타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 서구고전 양식 가운데 로코코와 신고전만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서구고전 양식을 로코코와 신고전으로 구분하여, 총 8가지로 스타일을 분류하였다.

1992; 김미희, 1992; 김영주, 1993 등) 결과 거실이 가족단위와 객객, 휴식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영역을 거실로 한정하였다.

5)한국 현대 주택의 이미지 특성은 문헌고찰 및 분석 결과의 양이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차후에 디자인 양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4)대부분의 사진 자료가 거실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신영숙,

② 스타일 분류를 위한 디자인 특성표

주택의 스타일 분류를 하기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스타일별 디자인 특성표를 작성하였다. 즉, 서구 현대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사조, 한국 현대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경향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스타일을 모더니즘, 라이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한국적 스타일, 로코코, 신고전 그리고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혼성적 스타일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스타일별로 시대적 배경, 이념, 형태, 재료, 장식 등의 특성을 정리한 디자인 특성표를 작성하고 대표적 사례가 되는 주택의 사진을 첨가하였다<sup>6)</sup>. 이 디자인 특성표는 박사학위 이상의 디자인

<표 1> 스타일별 디자인 특성

사조	전반적 특성	형태	재료	장식기타
모더니즘	-추상적 표현 -기능성, 경제성 중시 -간결함, 장식의 배제 -공간의 개방성과 연속성 -실내공간을 하나의 회화로 간주	-형태의 명료성 -사각의 입체로 규칙적 질서 표현 -면 분할에 따른 전체 형태 구성 -수직, 수평의 축 -전체적 통일성	-기계생산에 의한 현대적 재료사용 -재료의 노출 -철, 유리, 플라스틱, 금속, 가죽 등 -직물사용의 제한	-기능적, 무장식적 -물건의 단순화 또는 배제 -장식의 사용 제한 -액자, 그림의 제한 -단순한 벽난로 -수평의 대형창
레이트모더니즘	-국제주의 양식 음용 -음악적 요소의 반복 -과장된 강조 -기념비성 -절제된 장식성 -오브제성 -솔직한 구조의 표현	-추상적 형태 -조각적 형태 -대칭적 경향 -선형성 -공간의 상호관입성 -연속적 공간 -수직, 수평 구성의 대비를 통한 긴장감	-광택이 있는 표면 -유리 사용에 의한 개방감/투명감 표현 -기계적 이미지를 지닌 신소재 사용(스테인레스,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패널, 편향매달 등)	-일그러진 광택 표면 -변질의 효과 -표현의 최소화 -오브제를 통한 단순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성: 고전적 모티브 이용 -상징성: 기념비성 -장식성: 수사적 표현, 과장된 스케일 -대립성: 재료, 색상, 형태 대비 -맥락성: 지역성 표현	-유클러드 기하학 -탈피, 곡선형 도입 -과거의 문화, 인습적 형태요소와 현대적 형태요소의 병치 -고전적 형태를 기하학적 형태로 전환 -그래픽 요소 사용	-고전적 양식에 현대적 재료의 사용(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타일, 금속, 몰탈, 네온, 유리, 셀룰로이드, 스틸, 알루미늄 등) -중성적 질감	-과장된 스케일 -텍스처/조각/회화/수퍼그래픽 사용 -이적 기능보다 상징적 기능 중시 -단순한 페디먼트 -판타스틱 요소 -낮은 물건 이용
해체주의	-바닥, 벽, 천장, 개구부, 계단의 불안정성 -탈구성, 탈중심 -치환, 전이, 일탈 -직각 체계의 이탈 -부유 공간 창조 -시각적 긴장감	-왜곡된 원, 곡선, 부정형 사용된 기하학적 표현 -중첩과 폴라주름 통한 총화 -탈의미적 형태 -사선의 방향성	-중성적 이미지의 대리석, 금속판, 반사유리, 거울 사용 -신재료의 혼용 -스틸파이프, 스텐레스 스틸판, 편칭메탈 등의 가설재	-실내가구의 비정형 구성 -조형적 부가물 -점과 격자선 사용 -실내 파티션벽의 불규칙한 곡선처리 -패턴의 불규칙성
로코코	-실내장식요소의 발달, 경쾌하고 여성적 이미지, 중국적 모티브/이국적 분위기, 다양한 가구 등장	-비대칭적 형태 -규모가 작은 불규칙한 곡선의 사용 -컬럼과 회벽 소멸 -인간적 스케일/비례	-대리석, 목재 사용 -돌장식, 우드패널 등의 부분적 사용 -도금한 청동	-중국서 유래한 채색된 벽장식 유행 -조각대신 풍경화, 군화, 꽃다발, 들장미넝쿨 등의 장식
서구고전	-고전주의의 부활 -낭만주의 영향 -화려한 프랑스 앙페르 스타일과 지적인 영국 레전시 스타일 이 대표적	-대칭적 구성 -로코코 양식의 곡선은 소멸되고, 자유형 곡선, 반원, 궁형, 타원, 팔각의 고대 로마 스타일 등 다양	-대리석, 목재 사용 -대리석을 흉내낸 채색된 목재 -벽중앙 필드는 페인팅이나 직물처리 -실크와 직물 사용	-화려한 패널리ಂಗ -천장, 물딩의 스테코 조각/양각세김 -가구에 동물형상, 고전적 모티브, 군대 모티브 등 사용
한국성	-전통문양에서 패턴 유추, 자연의 미 표현 -공간감/개방감/어백의 미/소박성 표현 -소품, 가구를 통한 한국성 표현	-기와선에서 도출한 부드러운 곡선형태 -창, 문의 전통 문양 표현: 격자, 원자, 용자, 빛살 문양 등 -패턴을 통한 표현	-현대적 기술로 개량된 전통적 느낌의 재료 사용 -다지, 장판, 한지, 황토마루, 목재, 기와 등 사용	-전통적 소품, 가구, 조명 등 사용 -이조가구(장, 책, 함, 사발탁자, 장롱), 병풍, 도자기, 민화, 연 등의 사용

6)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부족으로 인해 디자인 특성표의 내용 가운데 디자인 이념과 사례를 제외하고 디자인 특성만을 <표1>에서 간단히 요약하였다.

전문가 4인에 의해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각 거실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3) 연구진행 및 분석 방법

①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1998년 1월에서 2월까지 수행되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시기를 분류하여 주택 사진(외관, 실내, 평면)을 시기별로 7개씩, 총 21개 주택을 선정하여 디자인 분석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 특성을 파악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수정, 보완되었다. 사진자료로는 분석이 어려운 색채 요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거실 벽과 바닥, 가구류 등에서 새로운 재료들과 두가지 이상의 재료가 혼성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첨가하였다. 또한 1960년대 주택의 실내 사진은 65년 이후의 것만 남아있었으며, 60년후반과 70년대는 분석가능한 주택수가 부족하여 60년대와 70년대를 하나의 시기로 처리하였다.

② 본조사

디자인 분석표를 수정, 보완한 뒤 1998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수집된 101개 주택의 디자인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주택 실내의 스타일 분석은 연구자를 포함한 석사 학위 이상의 전공자 4인이 참여하여 모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타일별 디자인 특성표에 열거된 기준을 토대로 확인 및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였다.

③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으로 분석되었다.

2. 한국 현대주택 거실디자인의 변화양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 디자인 특성과 변화를 (1)천장, 벽, 바닥, 창, 물딩을 포함한 실내건축요소, (2)가거양식 및 소파 배치 형태, (3)가구, 장식 및 조명 요소, (4)스타일 분석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의 변화양상을 통계적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2.1. 실내건축요소 및 양식의 변화양상

우선, 실내건축요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형태에 있어서는 직선적 형태가 지속되어 단순간결한 직선적 형태가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에서 주도적인 디자인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재료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다른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마감재 및 창문처리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표 2 참조>.

천장의 경우, 1960년대는 36%로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되던 목재 천장은 80년대에 와서 23%로 감소되었으며, 90년대에는 10%로 그

사용이 격감하였다. 벽지의 경우 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며, 특히 벽지의 개발과 수입에 의한 고급벽지의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60-70년대에 19%에 불과하던 벽지의 사용이 90년대에 와서는 49%로 급증하였다. 또한 페인트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60-70년대에는 5.6%였으나 80년대이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하여 벽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천장 재료로 자리잡게 되었다. 천장의 형태는 평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60-70년대에 58%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으며 90년대에는 74%로 증가하였다. 천장의 문양은 60-70년대에는 목재천장의 경우 자연스러운 스트라이프 선이 나타났으며, 벽지나 페인트의 경우는 대부분 문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에도 문양이 없는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90년에는 목재 사용의 감소와 더불어 문양이 없거나 눈에 잘 띠지않는 패턴으로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

벽의 재료는 1960-70년대에는 목재와 벽돌의 사용이 각각 28%, 14%로 가장 높았으며 그외에도 페인트, 벽지, 석재 등이 사용되었다. 80년대에 와서 천장의 재료와 마찬가지로 목재와 벽돌의 사용은 각각 3%, 6%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대신 벽지의 사용은 46%로 증가하여 가장 일반적인 재료가 되었다. 벽의 문양은 천장과 마찬가지로 문양이 없거나 눈에 잘 띠지않는 간소한 무늬를 사용하였다.

바닥의 재료는 1960-70년대에는 카펫을 사용한 경우와 파케트리 위에 리그를 사용한 경우가 각각 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80년대에 와서는 카펫의 사용이 10%로 감소하였고 모노룸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디자인이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모노룸위에 리그를 사용한 경우가 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모노룸과 리그의 대체는 모노룸이 바닥난방이 되고 위생적이며, 리그와 함께 사용하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재바닥은 80년대에는 파케트리와 쪽마루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리그와 함께 사용되어 리그의 사용이 부유층 주택에서는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에 와서는 파케트리의 사용이 3%로 현저히 감소한 반면 쪽마루가 31%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쪽마루의 증가는 90년대 들어와 기술의 발달로 쪽마루가 온돌과 같이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창의 재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새쉬와 목재가 사용되었다. 창의 형태는 고정창+미닫이창이 60-70년대 28%, 80년대 40%, 90년대 5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창의 크기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전부 유리를 사용한 전면창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실내에 개방감을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창살의 문양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양이 있는 경우는 한국전통이나 격자무늬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문처리는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단순한 커튼 처리가 50%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90년대에 와서 고급스러운 느낌의 수직블라인드의 사용이 31%로 커튼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80년대에 유행한 이중커튼과 밸런스를 함께 사용하는 장식적인 창문처리는 90년대에 와서는 밸런스의 사용이 감소하고 문양이 없는 간결한 수직블라인드의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단순화되었다.

기거 양식 및 소파의 배치 특성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서 1997년에 이르기까지 90%이상의 주택이 거실을 입식화하여 입식이 한국 현대주택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파의 배치를 살펴보면, 60-70년대에 ㄷ자형 배치가 44%, 병렬형 배치가 17%로 주류를 이루었으나 TV의 보급이 일반화된 80년대에 와서는 TV를 중심으로 한 ㄱ자형 배치가 27%로 가장 많아졌으며 ㄷ자형, 일자형, 병렬형 배치가 각각 20%이상으로 공존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소파 배치 형태는 90년대에 와서 ㄱ자형이 46%, 일자형이 20%로 증가하면서 TV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배치가 일반화되었다.

<표 2>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변화 1: 실내건축요소와 양식

분류	시 기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양식	비율	양식	비율	양식	비율
양식	기거양식	입식	97%	입식	93%	입식	98%
	소파배치	ㄷ자 병렬 ㄱ자	44% 17% 11%	ㄷ자 병렬/일자 ㄱ자	23% 27% 20%	ㄷ자 일자 ㄱ자	14% 20% 46%
천장	재료	목재 벽지 페인트	36% 19% 6%	목재 벽지 페인트	23% 27% 20%	목재 벽지 페인트	6% 49% 23%
	형태	평천장 경사천장	58% 36%	평천장 경사천장	63% 13%	평천장 경사천장	74% 14%
	문양	없음	37%	없음	53%	없음	86%
벽	재료	목재 벽돌 벽지 페인트	28% 14% 8% 11%	목지 벽돌 벽지 페인트	3% 6% 46% 29%	목재 벽돌 벽지 페인트	0% 3% 51% 31%
	형태	직선적	94%	직선적	87%	직선적	91%
	문양	재료문양 없음	33% 31%	재료문양 없음	10% 69%	재료문양 없음	6% 80%
바닥	재료	카펫 파케트리 + 리그 파케트리 쪽마루	19% 19% 17% 6%	카펫 모노룸+리그 쪽마루+리그 파케트리 쪽마루	10% 27% 13% 7% 10%	카펫 모노룸+리그 쪽마루+리그 파케트리 쪽마루	0% 23% 23% 3% 31%
	형태	직선적	81%	직선적	93%	직선적	91%
	문양	재료문양	42%	재료문양	37%	재료문양	51%
창	재료	새쉬 목재	39% 33%	새쉬 목재	63% 33%	새쉬 목재	51% 34%
	형태	고정+미닫이	28%	고정+미닫이	40%	고정+미닫이	57%
	크기	전면창 부분창	50% 28%	전면창 부분창	50% 43%	전면창 부분창	74% 9%
	창살문양	없음	50%	없음	73%	없음	69%
	창문처리	커튼 이중커튼 커튼+밸런스	61% 17% 0%	커튼 이중커튼 커튼+밸런스	53% 0% 17%	커튼 이중커튼 수직블라인드	17% 0% 31%
물딩	유무	유	44%	유	43%	유	26%
	재료	목재	88%	목재	100%	목재	100%
	형태	단순직선	100%	단순직선	100%	단순직선	100%

\*각 요소별로 빈도수가 높은 대표적 품목만을 열거하였음.

## 2.2. 가구, 장식 및 조명요소의 변화양상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에 나타나는 가구로는 큰 소파, 일인용 소파, 티테이블, 사이드테이블, 거실장, 붙박이장, 의자 등이 있다.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일어난 가구의 변화를 보면, 소파 재료, 테이블의

유무, 거실장의 높이, 불박이상의 유무, 의자 종류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파의 경우 간결한 모더니즘 스타일의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소파의 재료는 1960-70년대에는 직물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가죽은 25%에 불과하였으나, 80년대에 와서는 가죽의 사용이 50%로 증가한 반면 직물은 33%로 감소하였다. 90년대에는 가죽의 사용이 59%로, 가죽과 다른 재료가 혼합되어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81%로 급증하여 가장 대표적인 소파 재료가 되었다. 일인용 소파에 있어서도 1960-70년대에 유행하던 직물의 사용이 80년대로 오면서 가죽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테이블의 경우 재료나 형태에 있어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반면 테이블 사용 여부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티테이블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83%, 80년대에는 93%로 대부분의 주택 거실에서 사용되었으나 90년대에 와서는 66%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손님접대 위주의 사용에서 가족단위와 T.V.시청이라는 거실 용도상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도시 주택의 경우 대형이라고 해도 공간의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가족실을 따로 계획하는 예가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실은 대부분 가족들의 생활공간으로 필요에 따라 좌식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므로<sup>7)</sup> 소파의 중앙에 티테이블을 놓는 것은 오히려 공간 사용에 있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티테이블의 감소는 공간을 넓고 융통성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현재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티테이블과는 달리 사이드테이블은 1980년대에 23%로 줄어들다가 90년대에 와서 40%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티테이블보다는 소파나 의자의 바로 옆에 사이드테이블을 두어 평상시에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거실을 다목적으로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생활 행태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거실장의 유무를 보면, 1960-70년대에는 39%에서 80년대에는 53%로 증가하였으며, 90년대에도 80년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불박이상의 경우, 60-70년대에는 36%의 주택에서 불박이상을 설치하였으나 80년대에는 3%로 감소하였고 90년대에 와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불박이장 대신 이동가능한 거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거실장중에서도 키 큰 거실장의 사용은 80년대 20%에서 90년대 9%로 감소한 반면, 낮은 키 거실장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에는 26%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낮은 거실장의 사용이 많아진 원인을 한국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서구화된 한국 현대 주택이 처음 등장하였고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었다(강영환, 1991). 이 과정에서 서구주택과 같이 천장고가 높고 규모가 큰 주택에 어울리는 서구식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었다. 대표적 예로 천장까지 닿는 대형 불박이장, 거실을 가득 채운 소파와 의자, 모더니즘 실내에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서구고전 스타일의 조명이나

장식, 라디에타블 이용한 중앙난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구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1960-70년대 우리나라 부유층의 거실공간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은 우리의 현대주택에서 시도되었지만 우리의 생활방식에 따라 여과과정을 거쳐 정착되거나 변화되거나 또는 소멸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불박이장의 소멸이다. 즉, 천장까지 닿는 위압적인 불박이장 대신, 바닥에 앉았을 경우에도 답답하지 않고 편안히 느낄 수 있는 높이의 가구, 즉 우리의 전통가구가 갖고 있는 인간적 척도에, 실내공간을 확장되어 보이게 하는 중간키 이하의 거실장이 한국 현대주택에 자리잡게 되었다.

또다른 변화로는 거실에서 사용하는 의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60-70년대에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오토만 스타일의 의자가 33%의 주택에서 나타났으나 80년대에는 점차 감소하여 90년대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즉,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소파만을 제외하고는 공간을 차지하는 의자나 테이블을 제거하고 가능한 넓은 바닥 면적을 여백으로 남겨놓게 되었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장식물로는 그림, 식물, 도자기, 시계, 쿠션, 조각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그림과 식물은 지속적으로 한국 현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장식물로 나타났다. 벽에 그림을 걸어 놓은 주택의 경우 50% 정도가 꽃, 산수, 동물, 민화 등을 포함한 한국화나 한자 휘호를 걸어놓았으며, 도자기도 10-25% 정도로 꾸준히 사용되어 장식물을 통해 현대주택에 한국적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식물 사용에 있어서의 특징으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장식을 피하고 절제해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서구 주택과 같이 벽면을 여러개의 장식품이나 그림으로 가득 채워 장식적 이미지를 부여하기보다는(Jiyoung Y. Jeong, 1993), 한 두개의 장식품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백으로 남김으로서 장식을 절제한 한국전통적 디자인 특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명은 1960년대에서 1997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보였다. 60-70년대에는 샹데리아 36%, 테이블 램프 31%, 벽부등 25%이 많이 쓰인 반면, 천장매입등이나 스포트라이트, 플로어램프는 극히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80년대에 와서는 샹데리아의 사용이 43%로 증가하였으며, 천장매입등과 스포트라이트의 사용도 각각 30%, 23%로 증가하였다. 90년대에 와서는 천장매입등, 천장등, 스포트라이트, 플로어램프의 사용이 각각 51%, 43%, 20%, 14%로 증가하였으며, 샹데리아, 벽부등, 테이블램프의 사용은 23%, 14%, 9%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조명등 자체의 장식이 간소화되어, 샹데리아대신 단순한 디자인의 천장등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눈에 잘 띄지않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천장매입등의 사용이 부유층 주택에서 보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스포트라이트의 사용 증가 역시 조명의 장식 자체보다는 조명에 의한 연출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내코디네이션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모더니즘 스타일의 실내공간에 어울리는 조명디자인으로의 방향 전환이란 관점에서 해

7)우동주, 윤도근(1991). 아파트 공간변용면으로 본 거주자의 생활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7), pp. 43-51.

석해 볼 수 있다. 또한, 90년대에 와서 조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내코디네이션의 관점에서 조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조명의 실용성과 조광에 의한 분위기 연출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명 디자인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변화 2 : 가구, 장식 및 조명 요소

분 류	시 기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유무	비율	유무	비율	유무	비율	
큰 소파	유무	유	78%	유	80%	유	77%	
	재료	직물 가죽	57% 25%	직물 가죽	33% 50%	직물 가죽	15% 59%	
	형태	직선적 혼합	86% 11%	직선적 혼합	54% 29%	직선적 혼합	67% 22%	
	문양	없음 식물	42% 8%	없음 식물	71% 21%	없음 식물	82% 0%	
	스타일	모더니즘	93%	모더니즘	67%	모더니즘	78%	
일인용 소파	유무	유	78%	유	70%	유	77%	
	재료	가죽 직물	14% 54%	가죽 직물	52% 24%	가죽 직물	48% 22%	
	형태	직선적	71%	직선적	62%	직선적	59%	
	문양	없음 식물	48% 15%	없음 식물	57% 29%	없음 식물	67% 4%	
	스타일	모더니즘	86%	모더니즘	67%	모더니즘	63%	
가 구 · 장 식 · 조 명	테이블	유무	유	83%	유	93%	유	66%
	재료	목재	75%	목재	48%	목재	61%	
	형태	직선 혼합 곡선	75% 7% 18%	직선 혼합 곡선	61% 21% 18%	직선 혼합 곡선	50% 14% 32%	
	문양	없음	92%	없음	61%	없음	59%	
	스타일	모더니즘 한국전통 알수없음 신고전	88% 18% 6% 4%	모더니즘 한국전통 알수없음 신고전	56% 11% 18% 0%	모더니즘 한국전통 알수없음 신고전	46% 9% 5% 27%	
보조 테이블	유무	유	47%	유	23%	유	40%	
	재료	목재	89%	목재	100%	목재	79%	
	형태	직선 곡선 혼합	77% 24% 0%	직선 곡선 혼합	71% 0% 29%	직선 곡선 혼합	64% 34% 0%	
	문양	없음	86%	없음	71%	없음	57%	
	스타일	모던 한국적 신고전	77% 12% 0%	모던 한국적 신고전	57% 29% 0%	모던 한국적 신고전	21% 21% 36%	
벽난로	유무	유	11%	유	43%	유	34%	
	큰키	유	14%	유	20%	유	9%	
	중간키 낮은키	유 유	14% 11%	유 유	7% 26%	유 유	14% 26%	
불박이장	유무	유	36%	유	3%	유	0%	
	의 자	오토만체어 암체어	33% 14%	오토만체어 암체어	10% 20%	오토만체어 암체어	0% 17%	
장 식 물	그림	56%	그림	60%	그림	46%		
	식물	50%	식물	87%	식물	46%		
조 명	상대리아	36%	상대리아	43%	상대리아	23%		
	테이블램프	31%	테이블램프	7%	테이블램프	9%		
	벽부등	25%	벽부등	10%	벽부등	14%		
	천장등	22%	천장등	23%	천장등	43%		
	천장매입등	14%	천장매입등	30%	천장매입등	51%		
	플로어램프	6%	플로어램프	20%	플로어램프	14%		
	스포트라이트	6%	스포트라이트	23%	스포트라이트	20%		

### 2.3. 스타일 특성과 변화양상

한국 현대주택 거실 디자인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모더니즘이 가장 대표적인 양식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레이트모던, 서구고전, 해

체주의, 그리고 한국적 스타일 등이 나타났다. 모더니즘 양식은 60-70년대에는 75%, 80년대에는 57%, 90년대에는 71%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 모더니즘이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주도적인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레이트모더니즘 양식은 1980년대까지 15-20%의 비율로 나타났는데, 2층으로 확장된 천장과 곡선의 도입, 천장의 중심부나 가장자리에 원형이나 사각의 단차를 두어 변형을 가한 천장, 단차를 둔 바닥과 중앙에 설치한 벽난로 등을 통해 모더니즘 형태에 기하학적 변형을 주었고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보여주었다(사례: 사진 1-c). 이러한 거실 실내의 기하학적 변형은 90년대에 와서 무의미한 사선빔의 사용, 화려한 페인트칠, 예기치 않은 위치에 계단이나 간막이의 사용 등을 통해 네오모더니즘 양식으로 점차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구고전 양식은 2, 3개의 주택에서 주도적 스타일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60-70년대의 로코코 스타일이 80년대 이후에는 신고전 스타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신고전 양식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의 화려한 패널리, 천장이나 몰딩의 스테코 조각이나 패턴, 가구에 사용된 동물 형상 등과 같은 과장된 장식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고, 단지 단순화된 모더니즘 실내공간에 신고전 양식의 가구와 고전적 그림이나 장식품을 통해 부분적으로 신고전 양식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다(사례: 사진 1-d).

포스트모던 계열의 실내 디자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구 고전 양식이나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현대적 해석을 통해 장식성을 부여한 서구적 포스트모던 스타일이 한국적 정서나 한국적 디자인과는 조화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트모던 스타일이 상업 건축, 특히 외관 디자인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난 것과는 달리, 한국 주거 생활의 장으로 한국인들의 생활양식과 한국적 디자인의 원형을 반영하고 있는 주택의 실내디자인에서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거실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주도적 스타일 이외에도 다른 양식이 혼성적으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보조적 스타일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현대주택에서 나타나는 보조적 스타일은 특정 양식으로 분류할 수 없는 혼성적 스타일, 한국적 스타일 또는 신고전 스타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60-70년대에는 53%의 주택에서 보조적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아 디자인의 통일성을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10%의 주택에서만 보조적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주택에서 신고전, 한국전통, 또는 혼성적 경향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성적 경향은 90년대에 와서 다시 감소하여 보조적 스타일이 없는 주택이 56%로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적 스타일이 보조적 스타일로 나타난 것은 60-70년대의 17%에서 80년대에는 23%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90년대에 와서 12%로 다시 감소하여 주기적인 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에서 모더니즘은 가장 대표적인 주도적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보조적 스타일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거실 디자인에 있어 통일된 이미지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더니즘이 지속적으로 주도적 스타일로 나타난 반면, 보조적 스타일은 60-70년대에서 90년대로 오면서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주기적 변화를 보임으로서 시대적 특성이나 유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한국 현대주택 거실디자인의 스타일 변화

시기 분류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주도적 스타일	모던	75%	모던	57%	모던	71%
	레이트모던	20%	레이트모던	17%	레이트모던	9%
	서구고전(로코코)	6%	서구고전(로코코)	0%	서구고전(로코코)	0%
	서구고전(신고전)	0%	서구고전(신고전)	10%	서구고전(신고전)	9%
	포스트모던	0%	포스트모던	0%	포스트모던	0%
	해체	0%	해체	0%	해체	9%
	한국적	0%	한국적	7%	한국적	0%
	혼성적(알수없음)	0%	혼성적(알수없음)	10%	혼성적(알수없음)	3%
합 계	100%	합 계	100%	합 계	100%	
보조적 스타일	없음	53%	없음	10%	없음	56%
	한국적	17%	한국적	23%	한국적	12%
	혼성적(알수없음)	17%	혼성적(알수없음)	27%	혼성적(알수없음)	3%
	서구고전(신고전)	6%	서구고전(신고전)	10%	서구고전(신고전)	18%
	서구고전(로코코)	0%	서구고전(로코코)	3%	서구고전(로코코)	3%
	모던	6%	모던	10%	모던	9%
	레이트모던	0%	레이트모던	10%	레이트모던	0%
	포스트모던	0%	포스트모던	0%	포스트모던	0%
해체	0%	해체	0%	해체	0%	
합 계	100%	합 계	100%	합 계	100%	

### 3.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디자인 특성

위에서 언급한 통계적 분석에 따른 거실디자인의 변화양상에 의거하여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디자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5> 한국 현대주택 실내디자인의 변화와 지속

변화/지속 분류	변화 요소			지속 요소
	소멸	감소	증가	
기거양식	·	·	·	입식
소파배치	·	C자, 병렬	G자, 일자	·
천장	·	목재	벽지, 페인트	평천장
벽	·	목재	벽지, 페인트	직선 형태
바닥	파케트리	카펫	모노롬+러그, 쪽마루	직선 형태
창	·	·	·	새취, 목재 고정+미닫이 전면창
창문처리	·	커튼, 이중커튼	수직블라인드	·
물딩	·	사용 유무	·	목재, 단순직선형
가구	불박이장 오토만식 의자	직물(소파) 티테이블 의자	가족(소파) 보조테이블 낮은 거실장	목재, 직선 형태
장식	·	도자기	쿠션, 시계	그림, 화분
조명	·	상대리아, 테이블램프	천장매입등, 천장등, 스포트라이트	·
주도적 스타일	·	레이트모던	·	모던
보조적 스타일	·	혼성	신고전	한국적

종합적 분석을 위해 변화양상을 변화 요소와 지속 요소로 구분하여 파악하면 <표 5>와 같다.

변화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소파 배치, 마감재 재료, 창문 처리, 가구, 장식 및 조명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소파배치는 손님 접대나 대화를 중심으로 한 2자나 병렬형 배치가 감소하고 TV를 중심으로 개방적 형태의 G자나 일자형 배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한 TV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가구의 수를 줄이고 보다 개방적인 실내공간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닥재로는 1960-70년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파케트리나 카펫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바닥 난방이 가능한 모노롬이나 쪽마루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변화한 원인으로는 파케트리나 카펫 바닥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입식생활만을 하는 서구의 재료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입식화된 현대주택에서도 바닥 난방을 중시하고 입식과 좌식생활을 겸하는 한국적 생활방식에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자연히 소멸, 감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티테이블의 감소와 사이드테이블의 증가, 소파 및 의자 사용의 감소, 키 큰 불박이장의 소멸 등 가구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이어내려온 융통성있고 개방감있는 실내 공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융통성있고 개방적인 실내공간은 모더니즘 실내의 특성인 동시에 한국전통주택의 특성이기도 하다. 한국전통주택의 실내공간은 가구 및 장식의 사용을 절제하고, 필요에 따라 안방이나 건넌방의 미닫이 문을 열어놓아 개방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현대주택에서 나타나는 융통성있고 개방적인 실내공간은 한국전통주택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모더니즘 양식과 결합하여 정착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키 큰 불박이장 대신 낮은 거실장이 증가한 것 역시 현대에 와서도 좌식 생활을 겸하는 한국적 생활방식에 맞게 가구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여겨지며, 동시에 전통주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적 규모의 가구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키 큰 불박이장을 비롯한 가구의 사용이나 카펫과 같은 바닥재의 경우에서 보듯이 처음 도입되어서 일정기간동안 사용되다가, 그것이 한국적 정서나 생활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요소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천장은 평천장이 지속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벽, 바닥, 물딩과 같은 실내건축요소들도 모두 단순한 직선 형태로 나타나, 실내건축요소에 있어 곡선적이거나 복합적인 형태를 배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단순함은 모더니즘 스타일이 한국 현대주택의 주도적 스타일로 파악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에서 모더니즘 양식이 두드러게 나타난 원인을 한국 전통실내의 디자인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한국전통실내가 지닌 간결함, 장식의 절제, 여백의 미, 인간적 규모가 지닌 친밀감 등은 모더니즘의 디자인 특성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주택에 와서 재료와 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통적 특성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즉, 기능성, 재료, 가구 사용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양식은 형태와 전체적 이미지에 있어 한국전통적 실내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에서 모더니즘 양식이 거부감없이 수용,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서구 문화에 근거한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적 경향은 형태와 의미의 복합성, 장식적 표현, 과장된 스케일 등 추구하는 디자인 경향이 한국적 디자인과는 상치되는 특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한국 현대주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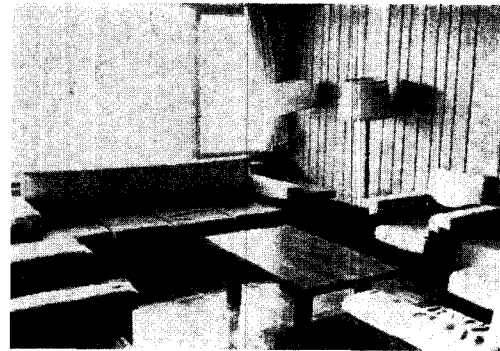
실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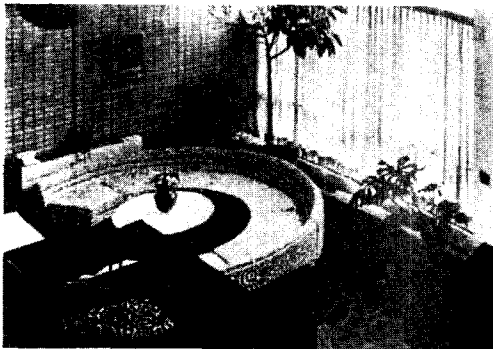
연구 결과 나타난 한국 현대주택의 시기별 특성과 변화를 종합해 볼 때,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 디자인은 1960-70년대에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서구식 마감재, 거실을 가득 메운 다양한 가구의 사용, 화려한 조명 등 서구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방기였다면, 1980년대는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에 뿌리박혀 있는 한국적 디자인을 서구식 생활과 서구식 디자인에 접목시키면서 여러



a) S씨댁 (1968)



b) P씨댁 (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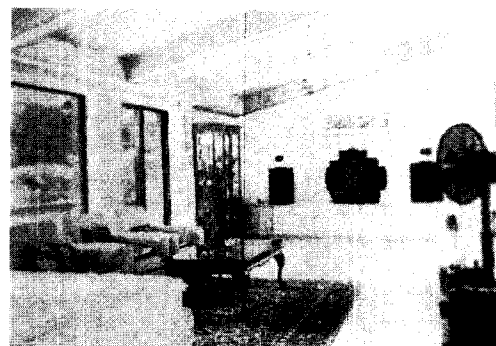
c) 한남동 송씨 (1970)



d) 상도동 이씨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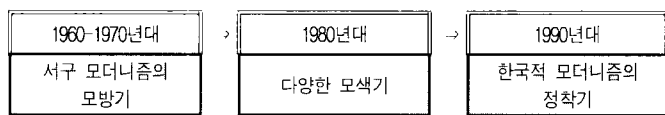
e) 실내장식가의 주택 (1991)



f) 향린 주택 (1992)

<사진 1> 1960-90년대 한국 현대주택 거실디자인 사례

가지 변화를 시도했던 모색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1980년대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혼용되었으며, 1960-70년대와는 달리 마감재 및 가구 등에서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고 불필요한 가구는 감소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다양화 추세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색의 시기를 거쳐 1990년대는 한국적 정서에 맞는 실내공간으로 정착하는 시기로 보인다. 즉, 직선적 형태의 지속, 단순한 마감 처리, 한국적 정서와 생활방식에 적합한 마감재의 확산, 직물의 절제, 장식을 제거한 조명 방식, 불필요한 가구의 배제 및 낮은 거실장의 사용, 개방감과 융통성의 부여 등을 통해 한국적 디자인 특성을 반영한 모더니즘 스타일이 정착한 시기로 파악된다.



<그림 1>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 디자인 특성의 변화과정

이러한 변화 과정은 한국 현대주택의 거실 디자인에서 서구 모더니즘 양식이 주도적 스타일로 정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적 정서에 맞게 변화, 적용되어 서구와는 차별화되는 한국적 모더니즘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196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재료, 가구, 조명 등의 실내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이에 비해 형태나 스타일에 있어서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이 곧 모더니즘 양식에 융화된 쉽게 변화하지 않는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지속의 양상을 분석해볼 때, 건축가가 설계한 한국 현대주택 거실디자인의 특성은 수직, 수평의 직선적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형태적 단순성', 장식의 절제를 통해 여백의 미로 표현되는 '공간적 간결성', 신재료의 개발과 그에 따른 재료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재료의 대체성', 소파 배치, 인간적 규모의 가구, 불필요한 가구의 배제 등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의 융통성과 개방감'으로 종합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막연히 서구적인 것으로 인식되던 한국 현대주택 디자인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현대주택 디자인의 흐름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대주택에서 나타난 한국적 디자인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협력을 통해 한국적 디자인을 우리의 주거공간에 적용시킴으로써 한국적 스타일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서울: 기문당, 1991
2.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 1 4, 한길사, 1994
3.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서울: 안그라픽스, 1994
4.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창지사, 1996

5. 박영순 외, 우리의 옛집이야기, 서울:열화당, 1998
6. 신영훈, 한국의 조형, 대원사, 1989.
7. 안창모, 한국 현대 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6
8. 오광수, 한국현대미술사, 열화당, 1995
9. 윤.복자, 지순, 기초주거학, 신광출판사, 1992
10. 윤장섭, 서양현대건축, 보성문화사, 1990.
11. 주남철, 한국건축미, 서울: 일지사, 1983
12.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1986 1990, 기문당, 1994
13. Collins, Peter, 이정수 역,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태림문화사, 1992
14. Curtis, William. J.R.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rentice-Hall, 1987
15. Faulkner, R., Nissen, L., Faulkner, S. Inside Today's Home. CBS COLLEGE PUBLISHING, 1986
16. Gilliat, Mary, Period Style. Conran Octopus, 1990
17. Jencks, Charles, Late-Modern Architecture, Academy Edition, 1980
18. Jencks, Charles, Architecture Today, Acacemy Edition, 1982
19. Jencks, Charles, Neo-Modern Architecture, SIGMA UNION, 1989
20. Klots, H. Modern Architecture. 양동양 역,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4
21. Lampugnani, V. M., 김정호 외 역, 현대건축사조개관, 기문당, 1990
22. Malnar, J. M. & Vodvarka, F.(1992). The Interior Dimension, 박영순, 이현수 역, 인테리어 디멘션.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6
23. Portoghesi, Paolo(1980). After Modern Architecture, NY: Rizzoli.
24. Stern, Robert(1980). "The Doubles of Post-Modern", The Harvard Architectural Review, (Spring, 1980).
25. 김정수, 한국현대건축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26. 김도식, 건축디자인에서의 합리성의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7. 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평면규모 30 40평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28. 김영주, 아파트거주자의 주거아이덴티티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9. 박 흥,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30. 유희준, 건축작품의 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31. 이윤성, 한국주택 실내디자인 이미지 유형 및 특성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2. Jiyoung Y. Jeong, Cultural Differences Reflected in The Interior Design of Apartments of Korean and American Graduate Students. M.S. Thesis. Univ. of Wisconsin, Madison, 1993.
33. 김문덕, 한국현대실내디자인의 표현경향, 실내디자인학회지 4, 1995, 4
34. 성인수, 현대건축 사조와 전통성의 구현: 건축설계의 새로운 과제, 대한건축학회지, 34(2), 1990, 3.
35. 신영숙, 도시중산층 아파트 거주가구의 개성표현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2), 1992, 2
36. 우동주, 윤도근, 아파트 공간변용변으로 본 거주자의 생활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7), 1991
37. 이인희, 이중우,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이론화 작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8), 1995, 8
38. 정인미, 현대디자인의 흐름, KOSID저널(통권 19), 1988
39. 조성희,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12), 1994, 12

<접수 : 1998. 8. 6>